

사육분과 위원장 인사말

이영희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변화의 한해였습니다.

축산농가를 울린 뉴 캣슬과 구제역, 또한 뜻하지 않은 광우병 파동, 그리고 하늘이 원망스러웠던 듯한 잦은 폭설 등, 그에 따른 수많은 재산 손실, 암담하고 우울한 지난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은 그 많은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해 가는 것 같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여기 저기 복구의 땀방울을 흘리는 회원 여러분을 볼 때 그래도 한가닥 빛이 비치는 오리업계의 앞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리협회의 지난 2월 정기총회를 보니 우리 협회가 뜨거운 정열의 깊은 피로 수혈한 느낌이 들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협회의 가능성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마다 원로들의 경륜과 신임 김규중 회장님의 정열과 새로운 이사님들의 의욕이 보태어지면 어느 축종의 협회에 못지 않은 홀륭한 오리협회가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부족함 많은 저를 사육분과 위원장으로 선출 해 주신 사육분과 회원님들의 믿음을 생각하니 한층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생산이 있어야만 판매가 존재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너진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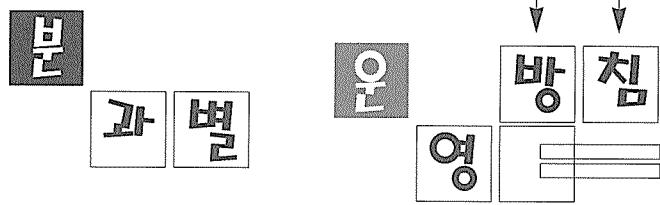
7~10%의 사료 값 인상, 초생추 값의 인상, 전기료 가스비 인상 등, 생산비는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큰오리 값은 7년 전 이 업계에 입문할 때의 그 가격 그대로인 것을 보면 사육을 포기하고픈 심정이 하루에 열두번 생기곤 합니다. (현재의 오리가격은 매우 드문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실에서 타 분야에 비해 저희 사육분야는 전국적으로 광활히 분포되어 있어 전사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타분야에 비해 적다 보니 결속력과 협동심이 결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육 농가 모임이 최소 분기별로 한 두 차례 있었으면 하며, 서로 협심탄핵하게 사육에 대한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초생추의 질병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면 보다 좋은 성적을 오려 농가 이익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만 혹, 한 두 부화장의 횡포가 있다면 전 사육농가의 일치단결 된 힘으로 거부 할 것입니다. 또한 부화, 유통분야의 분들과 많은 대화와 모임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며 우리분야의 어려움을 파력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신규 회원 농가를 위해 육용오리, 종오리 사육지침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협회장님 이하 전 회원님들의 물심양면 도움과 사육농가 여러분의 격려와 사심 없는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같이 고생하고 도움을 주신

충남지회 회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말씀 올리며 여러분들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신임회장님 이하 임원님들의 건투를 뵙습니다.

오리 유통분과 사업추진 시안 및 방향 유통분과 남 승 회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축산업의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발 빠른 대처전략의 필요성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축산물을 비롯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대외적 실정과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한 사육농가의 피해에 따른 오리 수급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관련업소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오리생산과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한국오리협회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오리유통분과에서는 차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 상품의 다양화

오리의 사육농가 및 유통업체가 영세하여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을 이루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체계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사육농가가

오리를 안정적으로 사육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유통업체도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오리수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사육농가와 유통업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오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

위생적인 유통망과 전략적 유통망구축

축산물의 국제화, 개방화를 위해서는 국내 모든 축산물 작업장이 HACCP(해썹)을 도입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특히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구조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리사육과, 도축, 유통이 위생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위생유통망을 구축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따

본
과
별

운
영
방
침

라 생산단계 이전에 고객의 욕구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산량, 제품의 종류 등의 생산 결정을 통합 조정하는 전략적 유통망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수입오리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강구

수입육 유통업체들이 최근 오리소비업소에 할인판매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내 오리 유통업체와 힘 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개방화를 맞아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으나, 오리사육분과 등과 협의하여 고급육 생산과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형성하여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시장 상황에 적합한 오리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저희 분과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오리협회가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항상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리산업의 생산기반이 확고해져 오리농가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없이 오리가 잘 크지 않습니까? 온갖 질병에 시달리십니까?

백제 축사 소독용 생석회로

바닥을 덮어버리십시오.

백제 축사 소독전용 생석회는 소독제의

모든 조건을 다갖추었습니다.

- ▶ 높은 열에 의한 살균 및 살충
- ▶ 가스에 의한 훈증소독
- ▶ 고독성 소독약과 산성으로 오염된 바닥을 분해 및 중화
- ▶ 소독 효과의 지속성
- ▶ 오염된 바닥을 차단하는 객토효과

생석회는 객토의
몇 배 효과!

도포작업도 저희가 직접 해드립니다.

세계최초의 생석회 소독 전문 업체 ——

백제 생석회

☎ 031-683-4509 / 017-202-4509 / 017-259-4509

전화 주시면 즉시 찾아 뵙겠습니다.